한국지성 60명이 쓴 책 60권으로 본 시대정신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현대 한국 지성의 모험

김호기 지음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란 말을 처음 쓴 이는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다. 리스트는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자유무역론에 맞서 보호무역론을 주창했다. 장하준은 리스트의 말을 인용한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미국을 위시해 오늘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시장주의와 자유무역이 아니라 국가개입과 보호무역을 통해 선진국이 됐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후진국과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 왔다는 게 장하준의 주장이다."(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와 세계화의 미래)

'백범일지', '뜻으로 본 한국역사', '무소유', '님의 침묵', '광장', '토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전환시대의 논리',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우리나라의 지난 100년은 격동과 파란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우리나라'라는 뜻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끌어온 힘은 무엇일까.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성과 시대정신'으로 요약한다.

김 교수가 펴낸 '현대 한국 지성의 모험'은 우리시대 60명 지식인의 기억과 사상을 조명한다.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성과 시대정신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이다.

책에는 1947년 출간된 김구의 '백범일지'부터 2000년대 이후 발간된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까지를 아우른다. 이 시기는 해방공간의 새 조국 건설이라는 과제부터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에 걸쳐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집합적 기억에 주목한다.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비롯해 민주화에 대한 집합적 기억은 공동체를 이끄는 성찰로 작용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기억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 또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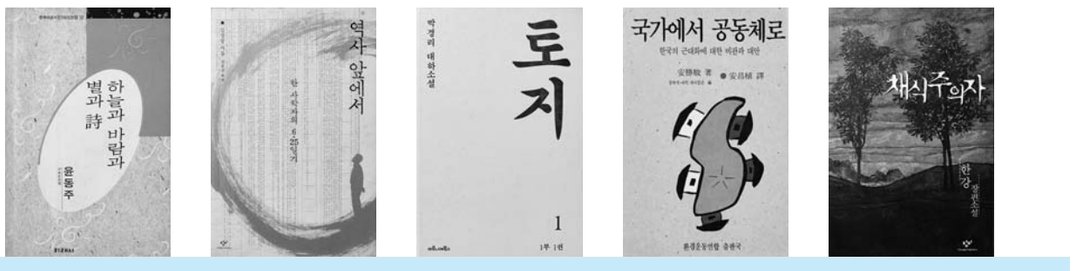
집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균형감각을 토대로 60명의 지식인과 책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보수와 진보, 인문학과 사회과학, 예술과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과 대표작을 담아내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승만, 김구, 여운형,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은 독립운동가 내지는 정치가가 더 어울린다.

책은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독립운동가와 나라 세우기 편에서는 민족주의 미래를 희원했던 김구의 '백범일지', 청년의 내일을 고민했던 안창호의 '도산 안창호 논설집' 등을 만날 수 있다. 종교와 철학 분야에는 재야의 미래를 그렸던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100세 시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김형석의 '백년을 살아보니' 등이 포함돼 있다.

문학의 시 부분에서는 독립을 간절하게 기원했던 한용운의 '님의 침묵', 자유를 노래했던 김수영의 '김수영 전집'을 소개하고 소설과 평론은 좌우이념을 다룬 최인훈의 '광장', 소외된 이들의 삶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다룬다.

역사 분야는 인류사회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본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조선후기 사회에서 자생적 자본주의 싹을 보았던 김용섭의 '조선 후기 농업사 연구'를 들 수 있다. 사회와 문화에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탐구한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와 답사를 통해 문화의 미래를 고찰했던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조명한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가 펴낸 '현대 한국 지성의 모험'은 지난 100년 우리 역사를 이끌어왔던 각 분야 지성들의 책을 조명한다. 〈메디치 제공〉

이밖에 여성운동을 다룬 이효재의 '한국의 여성운동', 생태적 사유로 정신적 교감과 공동체를 강조했던 김종철의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도 소개돼 있다.

저자는 "미래는 과거 기억의 현재적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궈나가는 과정이다. 기억은 지나간 역사의 증거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에 용기를 선사한다. 지난 100년 우리 현대 지성의 고투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용기를 안겨주길 소망한다"고 말한다.

〈메디치·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너라는 생활

김혜진 지음

김혜진 작가는 그동안 세대와 세대의 문제, 노동과 주거의 문제, 계급성과 격차의 문제를 다뤄왔다. 동시대 30대 여성 작가들과는 결이 다른 소설을 써온,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왔다.

지난 2012년 등단한 이후 작가의 시선은 줄곧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닿아 있었다. 혐오와 배제의 폭력성은 우리 사회 이면에 드리워진 민낯과 욕망을 보여준다. 첫 장편 '중앙역'을 비롯해 두 번째 장편 '딸에 대하여', 세 번째 장편 '9번의 일' 등은 시대와 세대의 문제를 작가의 시선으로 그린 의미있는 작품들이다.

이번에 펴낸 신작 소설집 '너라는 생활'은 명확하고 차분한 어조로 풀어낸 이야기들이다. 첫 소설집 발간 이후 발표했던 단편 8편을 모은 창작집에는 지난 4년 작가가 관심 갖고 기울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번 작품집의 가장 큰 특징은 2인칭 소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너'를 바라보고 궁금해하는 그러면서도 버거워하는 '나'의 이야기인 셈이다. 연인이거나 친구, 또는 밀접한 관계이지만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삶을 주시한다. 외부적인 급여나 주거의 차이로, 내부적인 마음이나 감정의 엇갈림으로 갈등하거나 괴로워한다.

표제작 '너라는 생활'에서 '나'는 '너'를 답답해하고 버거워하지만 떠나지 못한다. '너'가 경계를 두지 않고 '나'에게 왔기에 "서로의 생활이 이처럼 맞닿고 겹쳐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영현 평론가는 이를 가리켜 "'나'라는 필터와 '너'라는 장치"라 표현한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너라는 2인칭에 대해 쓰고 싶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소설들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천준범 지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3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말은 주식계좌가 없어도 연금에 가입한 이들이라면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돈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재테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주식 투자다. 신조어인 '동학개미운동'은 이미 일상화가 된 지 오래다. 서점가와 유튜브에는 주식 시장 읽는 법, 차트 분석법 등 투자 관련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주식을 시작할 때 '회사법'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반인은 대부분 간과한다.

진짜 부자들이 법부터 공부하는 이유 등을 담은 책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는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을 소개한다. 저자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초기업의 시대'를 발간했던 천준범 변호사.

회사의 지배구조, 지분 변화를 알아야 투자에 성공한다는 말은 기초적인 얘기다. 여기에서 나아가 저자는 '재벌법'까지 알아야 돈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회사의 지배주주도 자사의 '주식과 법'을 이용해 재테크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아울러 '재벌 규제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본다. '재벌법'은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 규재법'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뜻에서 저자가 붙였다.

그렇다면 '재벌 규제법'은 어떤 법이길래 편법 또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재벌들은 무죄판결을 받는 걸까? 저자는 우리나라 법에는 재벌규제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재벌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상응하는 규제법을 덧붙인 탓에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세법, 상법 등 법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부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이블 클래식

김성현 지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노래한 클래식을 만나다.'

그리스·로마 신화와 함께 서양 예술사에서 양대 축으로 꼽히는 성경. 클래식 음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바흐, 비발디, 멘델스존 등 수많은 작곡가가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 명곡을 탄생시켰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종교음악을 소개하는 '바이블 클래식'이 출간됐다.

저자인 김성현 조선일보 기자는 일간지에 연재한 '클래식 ABC'를 바탕으로 '클래식 수첩'을 펴냈다. 이밖에도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봉주르 오페라', '오늘의 클래식'을 썼으며,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운영하고 있다. 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흐, 비발디, 멘델스존 등은 물론, 불신과 회의의 시대라는 20세기에 활약한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 메시앙과 번스타인 같은 작곡가들이 작곡한 종교음악을 다룬다.

1부 구약성서, 2부 신약성서로 구성돼있으며 하이든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쇤베르크 '모세와 아론', 헨델 '여호수아', 생상스 '삼손과 데릴라', 바흐 '마태 수난곡', 오네게르 '다윗 왕', 윌턴 '벨사살의 향연'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종교음악을 소개하면서 음악의 바탕이 된 성경 이야기는 물론, 작곡 당시 작곡가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놓는다.

특히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믿음이 충돌할 때, 경제적 궁핍과 예술적 자각 사이에서 방황할 때, 작곡가들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종교적인 곡을 썼다고 전한다.

각 글의 말미에는 수많은 레코딩 중에서 저자가 엄선한 음반과 영상이 소개돼 있다.

〈생각의 힘·1만9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